

리얼 크리스천(5)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룩 (베드로 전서 3:1-12)

✚ 말씀 나누기

1.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족에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나누어 보세요.
2. 가장 가까운 가족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의 마음을 더 알아주고 존중하기 위해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나누어 보세요.
3.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는 '상처 장부'가 있지는 않나요? 용서하고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번 한 주 어떻게 기도할지 결단해 보세요.

✚ 함께 기도하기

1. 온유함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이 앞서기보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가족을 대하게 하시고,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시작된 거룩의 물결이 우리의 모든 삶으로 퍼져 나가게 하옵소서.

2. 상처를 넘어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먼저 크신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상처를 마음에 쌓아 두고 되갚으려 하기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능보다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분노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455장)



✎ 설교 요약하기

도입 | 거룩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교회나 직장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친절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쉽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일터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잔잔한 물 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면 작은 물결이 점점 넓게 퍼져 나가듯이 거룩의 영향력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거룩의 물방울 하나가 떨어질 때 그 영향력이 일터와 교회, 삶의 모든 자리로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론 1 | 내면을 온유함으로 단장하십시오.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정결한 행실로 믿음을 보여 주라고 권면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기분이 좋을 때뿐 아니라 화가 났을 때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행실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외모보다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대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본론 2 | 곁에 있는 배우자 귀히 여겨주십시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배우자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마음을 알아가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마음은 어떠한지 물으며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연약한 그릇처럼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 말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면 부부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기도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이삭이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던 리브가를 탓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론 3 | 상처를 넘어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우리의 본능은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받은 대로 갚으려 하지만,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역시 한때 칼을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까지 고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한 후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찌르고 상처 입힐 때 우리 안에서 분노와 악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능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 |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룩의 물결

거룩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온유함으로 단장하고, 곁에 있는 배우자와 가족을 귀히 여기며, 받은 상처를 되갚기보다 오히려 축복할 때 가정에 거룩의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가족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된 거룩의 작은 물결이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까지 넓게 퍼져 나가기를 바라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